

남도영화제 시즌2, 빛과 철의 도시 광양서 10월 개막

12개국 81편 무료상영... 광양 천만 영화 특별전 등 프로그램 다채

전라남도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광양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23년 시즌1 순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남도영화제는 남도의 맛과 멋, 문화를 2년마다 새롭게 브랜드하는 로컬영화제다. 시즌1 순천이 자연친화적이고 평화로운 남도의 풍경을 담았다면, 시즌2 광양은 빛과 철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남도의 풍경 속에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영화제는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국내외의 12개국 81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광양 천만 영화 특별전', '배우, 감독하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영화제는 10월23일 광양시민광장&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배우와 감독의 개막식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5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월 24일 '광양 천만 영화 특별전', 10월 25일 배우-감독 특별 프로그램 '배우, 감독하다!'가 진행된다. 10월 26일엔 윤석남 작가를 담은 다큐멘터리 '핑크문' 상영과 이연숙 평론가의 강연이 준비됐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광양의 산업과 문화, 그리고 남도의 정체성이 영화와 만나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남도영화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도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은 광양시민광장&야외공연장, 스타인베크코리아 광양항, 전남도립미술관, CGV광양, 광양시문화예술회관 등 5개소 8개 스크린에서 12개국 81여 편의 작품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제 세부일정과 상영작 등 자세한 내용은 남도영화제 공식 누리집(www.ndff.kr)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3일엔 최수종 남도영화제 집행위원장, 박정숙 부집행위원장 등이 서울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영화제 비전과 주요 상영작,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



남도와 남도영화제 집행위는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명수 기자

광양금호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예술×지식을 잇다
상시 프로그램 '예술 한 줄', 전문가 특강 '지식인 사이드' 수강생 모집

광양시 금호도서관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예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과 최신 지식을 접목해, '예술 한 줄'(일반 강좌형)과 '지식인 사이드'(전문가 특강형) 두 가지 테마로 마련됐다. '예술 한 줄'의 책, 음악, 그림을 만나는 예술인문학에서는 음악, 그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읽혀진 문학작품을 인문학적인 시선에서 탐구한다. 『프롬프트를 아시나요?』에서는 삼각관계를 통해 자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렘릿』에서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지킬 앤 하이드』에서는 스트레스 상황 속 인간의 이중성을 읽어낸다. 1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독서토론: 진격의 거인 리뷰'가 진행돼, 참가자들이 21세기 실존주의 만화로 주목받은 『진격의 거인』을 함께 읽고 토론한다. 이와 함께 미술 체험의 즐거움을 다할 '아크릴페인팅 그리는 즐거움' 강좌도 마련됐다. '지식인 사이드'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테마 지식 특강이다. AI, 예술, 금융, 무지



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흐름과 생활밀착형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김나리 강사는 「생성형 AI로 그리는 명화」와 「생성형 AI로 만드는 사운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움직이는 사진과 음악을 함께 제작한다. 유튜버 '뮤지컬전제 황조교'는 「뮤지컬, 너로 인하여 달라졌어 내기」를 통해 공연과 연계한 경영·기획 분야를 소개하며, '박곡희TV'로 활동 중인 유튜버 박동호 대표는 「함께 배워보는 가치투자」 강의를 진행한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 개막하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주제공연으로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를 선보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는 나주의 역사적 상징인 장화왕후 오 씨의 이야기를 현대 공연예술로 재해석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다. 이번 작품은 고려 건국의 숨은 인물로 평가받는 장화왕후 오 씨와 왕건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나주의 역사성을 창의적으로 풀어내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롭게 제작됐다.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개막을 장식하는 대표 무대로서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왕후, 장화'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아우

나주영산강축제,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 화려한 개막 무대

나주의 역사, 문화 자산... 무대예술 재해석한 대표 콘텐츠

르는 마당놀이형 창작극으로 구성됐고 실존 인물의 서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무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장소인 영산강정원 주무대는 탁트린 개방감을 자랑하는 야외무대로 강과 정원, 하늘이 맞닿는 풍광과 무대 예술이 조화를 이루며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일 전망이다. 주연은 뮤지컬 배우 이충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루나가 맡아 극의 몰입도를 더한다. 또한 다수의 대형 공연을 연출한 전문 연출진과 창작진이 참여해 작품의 예술성

과 대중성을 완성도 있게 담았다. 이번 공연은 역사 기반 콘텐츠를 현대 공연예술로 풀어낸 시도로 지역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나주의 문화자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단발성 공연을 넘어 지역 뮤지컬, 교육,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박명성 축제 총감독은 "뮤지컬 '왕후, 장화'는 이번 축제의 상징적 무대이자 압도적 킬러 콘텐츠로 나주와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히 되살리는 작품"이라며 "관객들이 나주의 깊은 이야기와 감동을 무대를 통해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2025. 10. 8.(수) 18:30 ~ 19:10 영산강정원 주무대

곡성군, 국비공모 사업 '심청길 비밀레시피' 10월 공연 개최
기차와 섬진강, 곡성 할머니들의 삶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오는 10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곡성 기차마을 일원에서 기차 여행 연극 '심청길 비밀레시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은 2025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곡성군과 전남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심청길 비밀레시피>는 2022년에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은 대표적인 곡성 로컬 콘텐츠로 이번에도 곡성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심청길 비밀레시피>는 곡성 할머니들의 삶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관객들은 실제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 풍경을 감상하며 야외무대로 이동하게 된다. 공연 중에는 지역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곡성의 맛과 정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올해 공연은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중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의 지역



배우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전통 소리 창법과 연기교육을 통해 시민 배우들의 역량을 강화해 완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심청길 비밀레시피〉는 곡성의 자연, 사람, 음식이 어우러진 진짜 로컬 공연"이라며 "올가을 곡성을 찾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기독교역사박물관,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선비문화체험학습관 등 국가유산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석 명절 전과 연휴 기간 중 시민과 관광객에게 국가유산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며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 국가유산시설, 추석 명절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독교역사박물관은 연휴 기간 중 10월 5일과 6일 휴관하며, ▲기독교역사박물관 워크북 풀이 ▲매산등 팝업카드 액자 만들기 ▲플로렌스 그림교실 ▲매산등 스크래치 노트 꾸미기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은 연휴 기간 중 10월 5일과 6일 휴관하며 ▲거북선, 판옥선 만들기 ▲함포 발사 및 노젓기 체험 ▲검단산성 및 순천역사 블록 쌓기 등 역사적 사건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통문화교실'을 열고 ▲전통한복 바르게 입기 ▲전통예절 교육 ▲전통 송편 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국민 내로남 말고는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